

『어느 때까지』

찬 양 찬양 2곡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 송 215장 - 내 죄 속해주신 주께

대표기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

말 씬 하박국 1:1-4

하박국 1:1-4 (NKRV)

- 1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 2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 3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 4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오늘의 키포인트 - 삶의 고난과 아픔속에서도 버티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일들이 예고없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사람들은 힘들어지면 크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인생을 포기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빌게이츠는 직원을 뽑을 때 성공한 사람들만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간부들을 뽑은 때는 일부러 실패한 기업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선지자란 시간적으로 앞서있고 장소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먼저 받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BC 605 년경 유다왕 여호야김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1절)를 받았습니다. 경고는 ‘무거운 짐’, ‘엄중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엄중한 말씀을 마치 짐처럼 받았습니다. 요시아 왕은 유다 사회를 개혁하고 종교개혁을 훌륭히 완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가 죽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자 종교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권력층의 부정과 부패가 팽배해 졌습니다. 유다는 국가적인 혼란과 종교적인 타락을 경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상황을 “강포”, “패역”, “겁탈”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포는 사납다는 뜻이고, 패역은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게 착취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겁탈은 파괴를 의미하는데 가정이 파괴되니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는 것을 묘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이 해이해 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해이해지면 정의가 시행되지 못합니다. 정의가 굽어지는 것입니다.(4절)

선지자 하박국은 이런 상황을 보고 아픔을 느끼며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이까?” 율법이 마비되어버려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사회와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며 고통스럽게 탄식하는 호세아의 기도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외침, “하나님 언제까지 성도들이 고통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아파해야 합니까?”라는 기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왜 악인이 잘되는지,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은 즐거운 기다림입니다.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모를 즐거움입니다. 하박국이 올라선 성루,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파수하는 곳은 높은 곳이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곳이며, 성읍 안팎을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나를 살펴보고 내가 지나온 자리를 살펴보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민목회를 할 때 성도들의 요청으로 설교를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면서, 원고대로, 강의하듯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지만 성도들은 그런 설교를 듣고 은혜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결심한 것이 설교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를 하되 원고를 보지말고 하자였습니다. 원고를 안보니 성도들의 얼굴이 보이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창15:6)를 말합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은 원어로 ‘에므나’입니다. 그 뜻은 버티다 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않게 한 것이 ‘에므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대답,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에므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 까지 버팀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롬1:17). 비록 지금 내 앞의 고난이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는 365일 매일 감사훈련을 하고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아픔을 버티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버티는(에므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 삶 나누기

1. 살면서 경험했던 고통과 아픔, 억울했던 일들이 있으면 구역식구들과 이야기 해 봅시다.
2.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던 일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3.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설교 내용을 참고해서 말해 봅시다.

중보기도

1.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2. 수능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 하소서
3.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4.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